

김 용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現代人-의명적 인간과 공간표현에 관한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관 화 학 과

박 혜 경

現代人-의명적 인간과 공간표현에 관한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용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 화 학 과

박 혜 경

인 준 서

박혜경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대학원 과정에 제작된 본인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는 주제의 내용적 배경과 표현 방법에 있어서 조형적인 특징을 연구 분석한 것이다.

본인의 작품은 도시화 된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비인간화된 삶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한다. 현대인은 바쁘게 돌아가는 고도화된 기술과 물질문명으로 채워진 현대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감정을 누르고 타협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감정의 억누름이 계속되면 현대인의 답답함은 극에 달하게 되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현대인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하거나 이탈을 꿈꿀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사회구성원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해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익명화 되어간다. 그러므로 현대인은 지쳐가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괴리감과 갈등을 느끼는 속에서 그들은 소외되고 비인간화되어진다. 본인은 이러한 현대인의 모습을 본인의 작품표현 주제로 삼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작품내용-현대인의 소외, 비인간화-를 논하고 소외를 극복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자연과의 만남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그에 관한 내용을 서술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인의 모습을 작품에서 익명적 인간과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작품의 조형적 분석으로, 익명적 공간 표현을 위해 사용된 중첩된 선들이 가지는 드로잉적인 요소와 선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현대인의 모습을 색채의 중첩을 통해 빈 공간으로 표현하여 그 모습은 마치 화면상에서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자 한 본인의 의도를 서술 하였다.

그리고 판화제작의 따른 표현기법의 설명으로 석판화를 선택하게 된 의미와 재료마다 가지는 속성 및 표현 의도를 밝히고, 본인의 작품을 제시하여, 작품 해설을 통해 구체적인 표현내용 및 조형적 시도와 적용을 논하여 본인의 조형관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II. 본론

1. 주제에 대한 분석: 현대인의 소외, 비인간화

1-1. 소외

1-2. 비인간화

1-3. 자연을 통한 소외의 극복

2. 작품의 조형분석

2-1. 중첩된 선으로 표현되어진 익명적 공간

2-2. 색채에 의한 익명적 인간의 표현과 극복으로서의 자연

2-3. 판화제작의 표현기법

3. 작품해설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록

[작품1] Cyber Space I , 103x75 cm , lithography , 2002

[작품2] Cyber Space II , 150x103cm, lithography, 2002

[작품3] Cyber Space III, 140x100 cm, lithography, 2004.

[작품4] 공허, 150x103cm, lithography, 2003.

[작품5] 자연과의 소통, 76x54 cm, lithography, 2004.

[작품6] Thinking, 76x54 cm, lithography, 2004.

[작품7] Adaptation, 103x75cm, lithography, 2004.

[작품8] Gloomy Pm, 100x140 cm, lithography, 2004.

[작품9] 익명적 인간, 162x130 cm, lithography, 2004.

[작품10] 소통, 33x30cm , lithography , 2005.

I. 서론

현대사회는 기계문명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개인주의가 팽배해졌다. 그러나 허무와 불안, 인간과 인간사이의 갈등, 그리고 서로간의 무관심의 고조로써 스스로 고립되는 인간 소외가 함께 초래되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욕구와 욕망의 노예가 되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도록 노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일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다양하고 차원 높은 문화를 형성해 오고 있으나 그것은 아이러니컬하게 인간부재의 어지러운 현실을 낳게 하였다.”¹⁾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성의 회복은 현대사회의 중요한문제로 대두된다. 근대화이후 현대인들은 불안과 고통의 높은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물질문명이라는 새로운 기대와 가능성을 제공받았다고 할 수 있다.”²⁾

그러나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삶 속에서 현대인들은 지쳐만 가고 있다. 인간이 오랫동안 숙고해서 발전시켜온 사회·경제·정치제도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과 거대성 때문에, 인간은 이제 그 부속품처럼 되어버려서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사회구조 속에서 현대인은 무력함, 고독함 속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곧 현대인이 사회구조에서 비인간화 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는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괴리감을 만드는 현실의 구조이기도 하다. 이러한 내용들의 현대인이 소외되는 모습은 본인의 작품에 있어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본인의 작품에서 표현된 현대인의 모습은 사회 구조 속에서 외면된 모습

1) 「루카치 미학연구」, 이주영 지음, 서광사 펴냄, 1986, p. 47.

2) Cyril E Black, *The Dynamics of Modernization : A Study in Comparative History*,

「근대화의 사회변동 - 근대화의 비교사」, 진덕규 옮김, 삼영사, 1985. p. 51.

과는 달리,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외로움을 빈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현대인의 모습을 익명적 인물로 대치하여 개인성이 소거된 존재로 나타나게 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모순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소외 그리고 비인간화를 극복하려는 인간소망, 즉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꿈과 희망도 함께 하였다.

따라서 본론 1장에서는 작품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現代人-소외와 비인간화와 자연을 통한 소외의 극복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하고, 구체적으로는, 현대인의 갈등을 사회적인 원인에서 찾고자 한다.

2장에서는 작품의 나타난 중첩된 선으로 만들어진 공간과 그곳에 존재하는 익명적 인간의 모습의 표현을 서술하고 본인 작품의 조형적 특징을 사회적인 원인에서 찾고자 한다.

중첩된 선으로 만들어진 공간과 그곳에 존재하는 익명적 인물형상의 표현방법과 색채표현을 기법적인(색채의 중첩) 방법을 주제와 연관하여 밝히려고 한다.

3장에서는 본인의 작품사진을 예시하고, 그것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작품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인은 본 논문을 위와 같은 주제로 제작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이론적인 근거의 연구를 통해서 작품주제에 대해 분석하고 본인의 조형관을 정립하여 지금까지의 작업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연구해야 할 것을 염두 하여 주제와 형식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어떻게 작업할 것인가의 생각과 본인 속에 내재되어온 자기 자신만의 주제와 형상 언어 등을 찾아서 앞으로 작품제작 기반으로 내용의 기틀로 삼고자 한다.

II. 본론

1. 주제에 대한 분석: 현대인의 소외, 비인간화, 자연을 통한 소외의 극복

1-1. 소외

소외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인간이 인간에게 고유한, 또는 본질적인 존재로부터 벗어나 이탈하고 변질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며, 오직 인간만이 갖는 독특한 현상이다.

현대사회와 인간존재의 다양한 소외현상 중에서 본인의 주된 관심사가 된 부분은 자아로부터의 소외,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소외, 그리고 사회, 집단으로부터의 소외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소외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자아라는 개념은, William James(1890)³⁾의하면, 자아개념을 물질적 자아, 심리적 자아, 그리고 사회적 자아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분류된다.

첫째, 물질적 자아(Material self)는, 물질적 측면으로 나의 육체적 특성과 나의 소유물을 말한다.

둘째, 심리적 자아(psychic or spiritual self)는 성격, 능력, 적성 등과 같이 내면적 특성을 말한다.

셋째, 사회적 자아(social self)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세 가지 자

3) 제임스 [James, William, 1842.1.11~1910.8.26] 미국의 심리학자·철학자 미국 주요저서 「심리학 원리」, 1890 「프래그머티즘」, 1907 「근본적 경험론」, 1912

아를 의미한다.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활에 근거하여 자아개념의 요소들을 끊임없이 평가한다.

그 결과 자기 존재감이 형성된다. 자신에 대한 존재는 긍정적일 때는, 만족과 기쁨을 느끼지만, 부정적일 때는 불만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에서 부정적 평가가 내려질 때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이렇듯 불만과 좌절감은 인간 자체의 외로움과 고독으로 이전되고, 자기 자신과 또 타인에게 거리감을 주며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수준이 높고, 현실적 자아가 그것에 못 미치면, 심한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간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의무적 자아가 높은 사람은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현실적 자아와 의무적 자아의 괴리가 크면, 불안과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상적 자아와 의무적 자아의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노력하면 그러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이 있다면, 불안과 불만은 일시적이게 되므로 심리적 압박감이 덜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상적 자아나 의무적 자아에 도달할 수 없다고 느낄 때는 좌절감과 절망감이 더욱 심해 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자아로 부터의 소외는, 타인에 대한 신념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상호 작용적으로 대인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즉 자기 능력에 대한 신뢰가 소외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타인과의 소외는

자아로 부터의 소외에서 비롯된 불안과 불만들로부터 시작되어 타인과의 소외로 발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 사회로의 소외로 이어지게 된다.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는 같은 활동으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여건은 더욱더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만들고 있으며 분업화가 전문화로 이루어지고 현대사회는 각자가 창출한 가치를 서로 교환해나가며 살아가야만 한다. 현대인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수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을 것이다. 또한, 현대인이 한 평생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람의 수나 종류 또한, 과거의 어느 때 보다 많아졌다.

이렇게 현대사회의 구조적 필요성이 현대인을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 놓인 사회적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자아에 대한 불안과 사회 부조리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차원의 사회적 집단에 소속 하게 되지만 점점 갈수록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인간은 고독하게 되고, 타인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고립과 소외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집단에서의 배척과 축출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고 있다.

고독은 현대인의 고통이다. 그러므로 고독한 삶은 불행하고 고통스런 삶이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고독을 두려워한다.

고독이란 외로움을 뜻한다.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서로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몹시 고독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고독의 중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며 즐거이 다른 사람과 자리를 같이 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회합에서 좀처럼 인격적 접촉을 경험하기 어려우므로 고독을 느끼게 된다. 바로 이와 같은 악순환 속에서 인간은 단조롭고 획일적인 도시생활로 인해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고도로 발달된 기술과 물질문명으로 인해 인간은 물질적인 풍성함 속에 인간의 환경을 개조해 주고 있지만, 인간과 세계,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관계의 결핍이 생기게 되어 고독함을 느끼게 된다.

데이비스 리즈먼의 고독한 군중이란 책을 보면 현대인은 또래집단·친구집단(peer group)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영향에 따라 행동 한다고 한다.

이러한 것을 타자(외부)지향형(Other directed type)⁴⁾이라고 한다.

고독한 인간들은 이러한 현대 고도산업화에 따르는 대중사회에 있어서의 특유한 성격유형이다. 현대인은 타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로부터 격리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처럼 외간상의 사교성과는 달리 내면적인 고립감에 번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성격을 말한다. 타자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에 현대인들에게는 심각한 불안과 외로움으로 점점 소외되는 것이다.

1-2. 비인간화

비인간화 된다는 말은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인간은 여가·문화·정의 등을 잃어 가고 있다. 또한 집단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개인의 고유와 개성은 상실해 간다.

컴퓨터 및 각종 정보 통신 매체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인간화 초래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간접적인 인간관계[사이버자아 - 아바타

4) 타인지향형 [other-directed type]

데이비스 리즈먼의 『고독한 군중』에 나오는 개념으로서 ‘외부지향형’이라고도 한다. 개인의 동조양식(同調樣式)의 세 가지 유형 중 한 양식이다. 자본주의사회가 독점단계로 들어가 사회적 생산이 국내시장의 대량소비에 의존하게 된 20세기 대중사회에서의 지배적인 성격유형이다. 자신의 무력과 망막(茫漠)한 불안 때문에 타인의 의향에 끊임없이 마음을 쓰면서 동조하고, 대량으로 소비하며, 신(神)과 양심이라는 내면적 권위의 부재(不在) 아래에서도 사회의 여러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 사회적 성격은, 미국의 상층 중산계급으로부터 신 중간층으로 확대되어, 널리 서유럽사회 일반에 번져 갔다. 심리적 장치(裝置)는 레이더에 비유된다.

(Avatar)]속에서 인격적인 관계이기 보다는 부분적 기능의 관계로 자연스런 관계 형성 곤란해진다. 그 이유는 사이버 공간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적인 인간관계는 익명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현대인은 현실과 가상의 혼동으로 정체성 위기 또한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와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만연해지면서 도덕과 윤리는 과거보다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사회 환경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익명성을 띤 비도덕적 행동들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의 무안한 정보의 공유로 무책임한 언어와 사이버 폭력 그리고 그 밖의 문제들이 사이버 상을 넘어 현실로 이어 질 수도 있다. 점점 비인간화되고 사이버상의 익명적 관계가 심화되면 현대인들 간의 유대와 친근감이 약화되어 지고 서로간의 의심과 불신이 짙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 전통적인 공동체 즉 사회구조도 흔들리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의 비인간화 현상은 주로 비대면적 인간관계로 인한 익명성의 조장과 인간 소외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과학적 발달과 산업화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쉴 곳을 잃어간다. 그러면서 더욱더 현대인은 비인간화되어진다. 비인간화가 되어지면 더 이상 인간은 사회 구성원으로 속하려 하지 않고, 고립된 상태로 자아정체성을 잃어간다. 이렇듯 비인간화되어지면 현대인들은 고통 (고독함, 무려함, 외로움 등)을 해소 할 수가 없다.

1-3. 자연을 통한 소외의 극복

과학적 발달과 함께 정보화와 네트워크 시대로 발전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연과 멀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자연 또한 물질문명의 개발로 인해 황폐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인들의 삶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

에서 잠시의 여유도 없이 일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그로인해 쌓인 과도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현대는 바쁜 일상에 발맞추어 인터넷이라는 좋은 친구를 현대인들에게 선물 하였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시간을 내어 찾아가거나 약속을 하지 않아도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오락이나, 사람과의 대화(채팅), 쇼핑, 정보 등을 손쉽게 공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무방비 상태로 인터넷의 무한한 정보 속에 노출되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접촉의 기회는 줄어들게 되고 타인과의 만남이나 공동체 생활의 기회도 없어진다. 네트워크시대는 우리에게 편리함과 무한한 정보공유와 함께 인간에게는 사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고립과 소외감, 외로움, 고독함 등을 안겨 주었고 나아가서는 현대인들이 비인간화 되어지는 현상을 낳게 하였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본인이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분별한 발달로 인한 자연의 파괴로 부터 사회 속에서 고립되어지는 현대인에 대한 소외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비인간화되어진다는 것은, 현대인들이 고통(고독함, 무력함, 외로움 등)들은 쉽게 해소하지 못하고 타인과 사회 속에서 소외 되었을 때 비인간화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바쁜 일상과 매일 똑같은 생활 속에서 그것들을 쉽게 해소하기란 어려운 문제이다.

소외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접촉이 필요하다. 인간의 삶은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모두의 삶이 함께 공유하여야 하는 인식 아래 서로에게 애정을 가지고 인간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처럼 사람은 혼자만으로 살아갈 수 없으며, 더불어서 함께 사는 관계이다. 그리고 자연 또한 인간의 삶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양식이다.

이러한 생각의 인식 속에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소외의 극복을 위한 방법으로 도심 공간 안에 자연과의 소통을 느낄 수 있도록 공원이나, 복잡하게 이어

진 도로 안에 천변 다리 복원 등 곳곳에 작은 자연을 만들어 놓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도시화된 삶 속에서 우리는 다시 순수했던 과거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을 시작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自然을 모태로 태어난 인간은 현대화 도시화로 황폐화된 인간성을 생명의 원천인 自然과의 만남과 동화를 통하여 되찾을 수 있다.

(2) 작품의 조형 분석

2-1. 중첩된 선으로 표현 되어진 익명적 공간

선은 다른 어느 조형요소보다도 창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작가의 내면세계의 흐름에 따라 화면위에 그려지며, 그 자체가 정서적 충동을 일으키는 감정인 것이다. 이렇듯 작품에 나타나는 선의 반복은 시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선의 반복은 상호 관계에 의하여 시각적 움직임을 통해 공간성을 보여준다.

“반복된 선의 중첩(Over lapping), 또는 중복(Superposition)은 한 단위가 부분적으로 그것의 위에 있는 다른 단위에 가려 질 때 생긴다. 중첩은 보다 통일된 패턴 안에서 집중됨(Concentrating)으로써 그 형태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중첩은 대상의 부분들을 제거하는 속성과 동시에 대상을 통합하는 속성을 가진다.”⁵⁾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난 선의 중첩된 표현은 석판화의 기법을 통해 몇 번이고 반복하여 찍어내어 나타내었다. 그리고 프레스를 통과해 찍혀진 종이는 중첩된 선들의 반복 과정 속에서 선들은 하나의 면을 이룬다. 이러한 표현의

5) 「미술과 시지각」, 루돌프 아른하임 저서 김춘일 역, 홍성사, 1981,p147

재료로는 먹지, 유성매직펜, 볼펜, 리도 펜슬 등을 사용하였다. 그렇게 반복 되어 만들어진 중첩된 선의 모형은 마치 철조망 같은 모양을 형성하기도 하고, 건축의 뼈대의 잔상(그리드)처럼 보여 지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사회의 조직적이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공허함을 느끼게 해준다. 작품에서 보여지는 중첩된 선들은 어느 부분은 남기고, 또 사라지기도 하면서 다양한 형식을 평면에 환원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작품1, 2, 4, 10]

그리고 작품에서 보여지는 중첩된 선에 의해 만들어진 면의 의미는 도시화된 사회 속에 얽혀있는 복잡한 인간관계 설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의 공간표현(면의 의미)을 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원근감을 느끼게 해주려 했던 깊은 사선으로 표현된 선들은 작위적이지만, 냉소적이고, 비애감서린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즉 단순한 원근감표현을 위한 조형적 부분의 요소라기 보다는 현대인들의 고뇌를 표현 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본인의 표현과는 달리 깊은 사선으로 투사된 공간은 인간의 고뇌의 깊이를 만들어 내기 보단 막혀있는 벽을 연장 하는듯한 답답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작품9]

이러한 딱딱한 구조의 선들로 조합된 공간은 표현 형식에 있어 지루함과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보일 수 있지만 욕구와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 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산출 되었다.

본인의 작품에서 나오는 중첩된 선의 공간은 인간이 체험하는 공간으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유동적인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은 양극에 대립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에게 종속되어 있으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는 두 개념으로 간주 되어야 한다. 즉 소외를 느끼는 사회구조를 암시하는 공간과, 그 속에서 존재하는 현대인들이 꿈꾸는 이상적 공간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듯 본인은 현대인의 소외, 비인간화속에서 단절 되어가는 공간을

선의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앞서 말한 익명적 인간을 형성하게 하는 현대사회의 구조를 표현하고자 함에서 이루어졌다.

2-2 색채에 의한 익명적 인간의 표현과 극복으로서의 자연

“색채는 형태처럼 공간의 한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진동이다. 색채는 사고가 개입할 필요도 없이 직접적으로 화가의 본성을 반영해준다.”⁶⁾ 라는 말은 색은 감성적 인식 세계를 포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색은 이처럼 인간의 감성에 직접 호소하며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색은 다른 예술가들이 여러 가지 수단에 의해 표현해 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정신적인 분위기를 농축시키는데 기여 하고 있다.

따라서 색이란 물체에 예속되어 그 성질을 설명하는 부가적인 기능으로부터 해방되어 그 자체만으로 인간의 감각, 감정을 호소하며, 나름대로의 법칙에서 일어나는 색의 자율성을 의미한다.

“모든 색은 제각각 인간에게 어떤 특수한 느낌을 준다.”⁷⁾ 라는 말들에서 알 수 있듯이, 색은 어떠한 상징적, 비유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며, 그림의 의미를 돕는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현대인들이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 소외의 대한 극복으로 자연으로부터의 회귀에 대한 마음을 담고 있다. 이러한 현대인의 모습을 사실적 묘사로 표현 한 것이 아니라 비워진 공간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형체로 평면적인 새면으로 표현되어졌다. 그리고 그 형체 안에는 검정 또는 흰색, 식물의 드로잉으로 표현하였다.[작품3, 4, 5, 7, 8]

배경이나 자연의 요소로 표현될 수 있는 잔디, 잎사귀, 하늘, 구름 등을 단

6) 「예술과 영혼」, 르네위그 지음, 김화영 역, 열화당 1979, P18

7) 「색채론」, 요한 볼프강 괴테 지음, 민음사, 2003, p282

순한 드로잉으로 처리하여 인간의 형체 속에 스며지도록 표현 하였다. 소외되고 비인간화되어 익명화된 현대인들의 인간성을 치유하는 바램으로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 한 것이다.[작품7,10]

이처럼 색으로만 인체를 표현한 이유는 색채란 가장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에 있어서 강력한 조형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본인은 소외되고 비인간화된 현대인들의 꿈과 이상을 색채로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도시화된 사회 구조 속에 없어서는 안 될 현대인이 살아가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의 표현을 의미한다.

화면 속 배경안의 검정색으로 표현된 인간의 모습은 단순한 검정 잉크로 한번에 찍어내기보다는 여러 색을 반복하여 검정에 가까운 색으로 유도 하였다. 본인 작품에서 검정색의 의미는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 황폐함으로부터 치유되지 못하는 답답함과 암울함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고, 현대인을 누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회의 강압적 힘을 상징한다.[작품4, 5, 8]

그리고 흰색으로만 표현 된 인간의 모습의 의미는 흰색이란 어떤 색을 섞어도 그 색이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다. 다만 농도에 따라 조금 열어질 뿐이다. 동화(同化)된다는 것은 상대방을 흡수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며 다만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주는 것이다. 인간은 태초에 자연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 같은 의미로 흰색이야 말로 현대인이 가지는 순수한 자연으로의 동경을 표현으로서 상징되어 졌다.[작품3, 4, 5]

이처럼, 본인의 작품에서의 색채는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성보다 상징적 측면에서 해석되어 사용되어 졌다.

2-3. 판화제작의 표현기법

석판화는 18세기 독일의 제네펠더(Aloys Senefelder, 1771~1834)가 물과 기름의 반발작용을 이용하여 새롭게 고안해낸 평판의 일종으로 회화적 표현성이 뛰어난 판종으로서 제작의 간편함과 사진제판의 발전에 따라 상업인쇄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석판화의 회화적 표현성은 많은 화가들의 관심을 유발시켜 20세기 현대미술에 많은 영향을 준다. 특히 칸딘스키는 20세기의 생산. 제작의 시대정신에 석판화가 일치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석판화에서는 돌을 취급하는 과정에서의 그 유연성, 다시 말해 어떤 연장을 가지고도 쉽게 처리되고 무제한적으로 교정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장점에 처음부터 아주 자세히 작성된 계획 없이도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손쉬움이 현대사회의 특성에 상응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현대인의 삶의 유동적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러한 석판화의 회화성과 즉발적인 Drawing적 표현력을 획득하기위해 석판화를 선택하게 되었다. 석판화는 물과 기름의 반발로서 모든 재료는 유성이면 다 가능하다. 별다른 과정 없이 석판위에 본인이 직접 드로잉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페인팅과 매우 흡사 하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의 작업에서 많이 사용된 해먹, 유성매직, 먹지, 보호잉크, 오일스틱, 락카 스프레이, 전사 방법 등의 표현의 방법적 측면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해먹은 수채화처럼 농담 표현이 가능하며 우연한 형태를 가지며 마르고 나면 판면에 정착 된다. 물이 마르면서 판면에 붓이 지나간 자리에는 독특한 주름의 형태를 형성하며 판에 정착된다. 본인은 해먹을 통해 수채화에서 나타나는 물의 농담적 표현으로 자연적인 물성 즉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

고 저절로 스며드는 듯한 물의 퍼짐을 표현 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해먹이 판에 고착되면서 생기는 주름의 특성 때문에 물의 자연스러운 퍼짐, 즉 번지는 효과를 표현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종이위에 물이 맺혀있는 상태에 색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재빠르면서도 은은하게 퍼지는 효과를 내고 싶었던 이유는 현대인과 자연의 연결의 의미를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상황과 같은 의미로써 감성적 측면에서의 표현을 위함이었다.

그래서 본인의 작업에서는 해먹과 함께 본인이 추구하는 미세한 유동적 공간의 표현을 위해 부분적으로 직접적으로 수채화로 그려내거나 먼저 다른 종이위에 표현 하여 그것을 복사하여 전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작품3, 8]

두 번째로 유성매직과 먹지, 리도 펜슬이나 리도 크레용 등으로 본인의 작품에서 선적인 드로잉으로 표현 하여 현대인이 살아가는 도시의 환경 즉 사회의 구조적인 면을 표현하고자 하였다.[작품1, 2, 3, 4,]

석판위에 섬세한 선을 표현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선을 표현할 수 있는 재료로 몇 번이고 반복하여 선을 긋는다. 이러한 반복된 과정을 거쳐 판을 찍는데 한 개의 판이 아닌 각각의 색이 다른 판을 만들고 층을 이루어 나가면서 찍어나가야만 이미지를 형성해 독특한 공간이 형성한다. [작품1, 2, 4, 6]

하나의 선들은 선과 선들이 계속해서 맞물리면서 하나의 면을 만들고 그 면들이 중첩을 통해 채워지면서 답답한 현실 공간처럼 보이게 된다.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난 중첩으로 표현된 선의느낌은 철조망 같기도 하며 답답한 벽을 연상하게도 한다. 이것은 마치 현대인이 소외와 고독 안에서 단절되어가는 모습의 한 단편표현 하고자 함에서 이루 워 졌다.[작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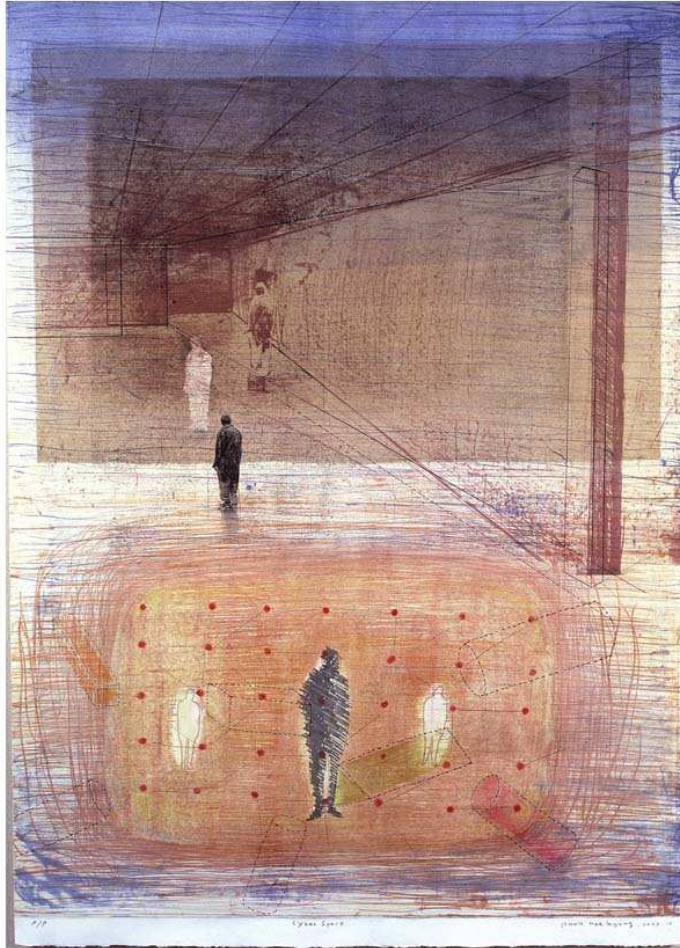
세 번째로 본인은 작품에서 인간의 모습을 표정이나 신체의 어느 일부분조

차 묘사 되지 않는 빈 공간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것은 본론에서 말한 것과 같이 사회는 도시화 되고, 컴퓨터를 매개로한 간접적인 인간관계(사이버자아-‘아바타’)로 익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다. 본인은 이러한 수많은 익명적 인간들을 모습들을 보호잉크, 락카 스프레이 등으로 드로잉 하여 흰색의 면으로 담아내었다. [작품4, 5, 6, 7] 흰색의 면이 판화지에 찍혀져 나올 때의 익명적 인간의 모습은 공허함. 고독함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본인은 이러한 평판의 성격을 이해하고 좀 더 회화적인 평면성과 수채화처럼 맑은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어서 잉크에 미디엄(Medium)을 섞어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이때 색의 층들이 겹치면서 색의 혼합을 만들거나 이미 찍힌 색의 층위에 압도적으로 짙히게 함으로써 물감을 통한 공간이 형성 되어 지기도 한다. [작품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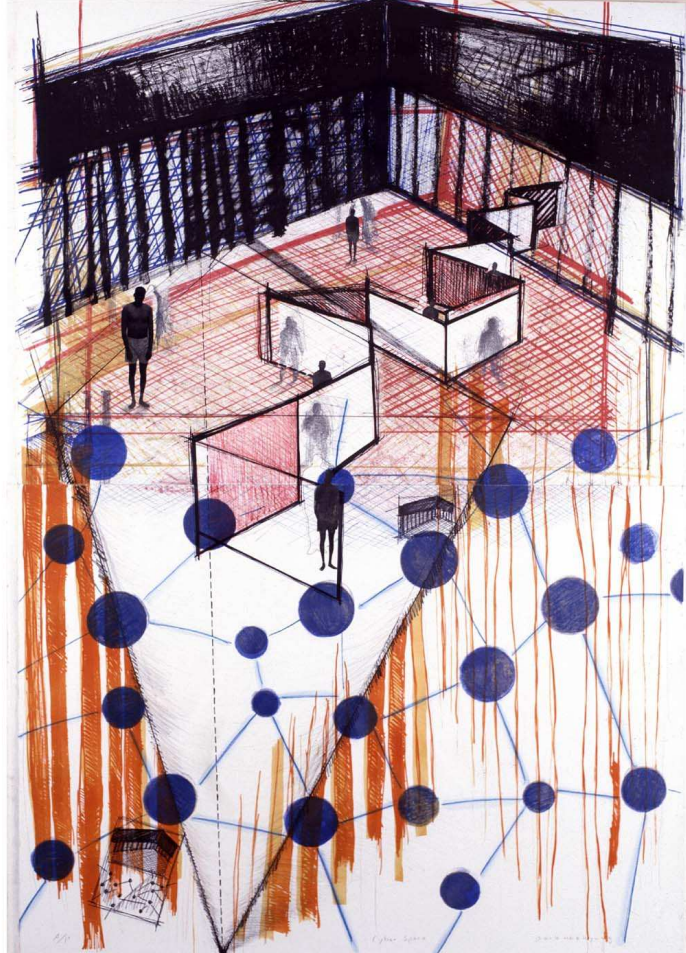
이것은 물감의 색들이 직접적으로 혼합되거나 덩어리가 되어지는 유화나 그 밖의 다른 재료들의 성격과는 상반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공간을 투명성으로 비쳐보고자 하는 본인의 의도로부터 출발 되어졌다.

3. 작품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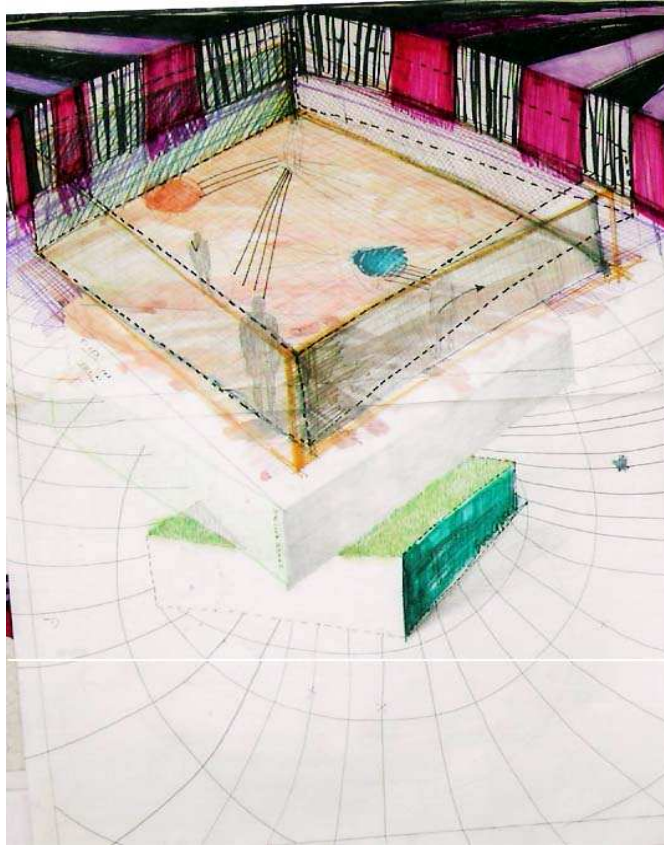


[작품1] Cyber Space I

103 x 75cm , lithography , 2002



[작품2] Cyber space II
150x103 cm , lithography , 2003



[작품3] Cyber space III
140x100 cm, lithography , 2004

[작품1] Cyber Space I

[작품2] Cyber Space II

[작품3] Cyber space III

현대인들은 규칙적이고, 획일적이며, 자동화 된 사회 제도의 방법에 따라, 개인 혹은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집단과 개인은 점점 사회 속에서 고립되어 답답함과 공허함을 가지게 된다. 그 이유는 개인주의로 인해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외 되어간다. 그것은 즉 공허함 속에서 소외로 인해 단절된 인간의 모습들이다. 본인은 이러한 이중적 구조에 공존 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존재의식과 사회의 구조적인 관계에 대해 표현하고자 [작품1,2,3]을 제작 하게 되었다.

[작품1] Cyber space I 에서는 인간의 꿈을 제2차 3차원의 공간으로 넘나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표현하기위한 장치로 네모난 투명한 면을 중첩하여 표현 하였으며, 그 공간의 의미는 인터넷의 네트워크의 폭 넓은 발전이 가져온 즉 가상현실 속의 또 다른 사회공간을 의미한다.

또한 [작품2]와[작품3] 역시 위에서 나온 내용과 같은 내용의 주제로 표현하였다.하지만 [작품1]에서는 면의 중첩을 통해 가상공간을 표현했다면 [작품2]와 [작품3]에서는 중첩된 선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공간을 표현하였다. [작품1]에서 보여 지는 공간의 느낌이 맑고 투명한 가상공간이라면 [작품2]와[작품3]은 강하고 조직적인 느낌으로서, [작품2]가상공간표현은 빨강색, 검정색, 파랑색, 등으로 유성매직과 오일스틱을 이용하여 중첩된 선들로 석판에 직접적

인 드로잉을 통해서 철조망 이미지로 보인다. [작품3]은 중첩된 선 안에 자주색과 연보라색 검정색등의 색으로 면을 만들어 세 개의 사각형이 엇갈리면서 하나의 무대 같은 느낌 살려 공간을 표현하였다. 이같이 [작품1,2,3]에서 나타난 중첩된 선들은 작품 속에서 하나의 면으로 보여 지며, 그 모습은 마치 미로의 형식과 전체적으로는 건물의 뼈대의 잔상처럼, 건축에 있어서 기초적인 도면의 형태로 보여 진다. 중첩된 선은 화면에서 경직적이고 일률성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에너지를 부여하는 공간이다. 그 공간은 평면으로 인한 한계에 벗어나 “공간성”을 함축한 “평면”으로 확산 되어진 것으로, 평면은 감성 시각의 표상을 나타내는 장으로서 평면에 부여된 생성적 공간이란 유동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소우주에서 대우주로 확산되려는 열려진 정신적 내면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작품 속 공간 안에 그려진 선은 거대하고 빠르게 변화해가는 사이버 배경을 접속할 수 있는 통로의 의미로 표현하였다.

사이버 공간과의 접속의 표현을 [작품1]에서는 잉크에 미디엄(Medium)을 많이 혼합하여 옅은 베이지색으로 나타냄으로서 무한한 네트워크 환경의 확장된 공간을 투명함으로 강조하고자 하였고,[작품2,3]은 중첩된 선의 연결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작품 안 인물들은 사이버 공간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으로 보고, 익명적인 인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여전히 고립되어진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바타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의 느낌은 어둡고 답답한 무거운 색의 표현 보다는 투명성을 강조하여 긍정적이고 자연스럽고 가벼운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도가 들어있다.

공간 안에는 석판을 통해 먹지, 펜슬, 유성매직, 오일스틱 등으로 드로잉한 선들이 교차하는데([작품1]점선을 통한 사각형, 원기둥, 인물사이에 연결된

선,[작품3]의 배경의 라인 선등) 그것은 내적인 공허함에 의해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인물이 제2차 3차 공간에 각각 하나씩 교차하며 현대 사회속의 단절 되어가는 모습을 그려내고자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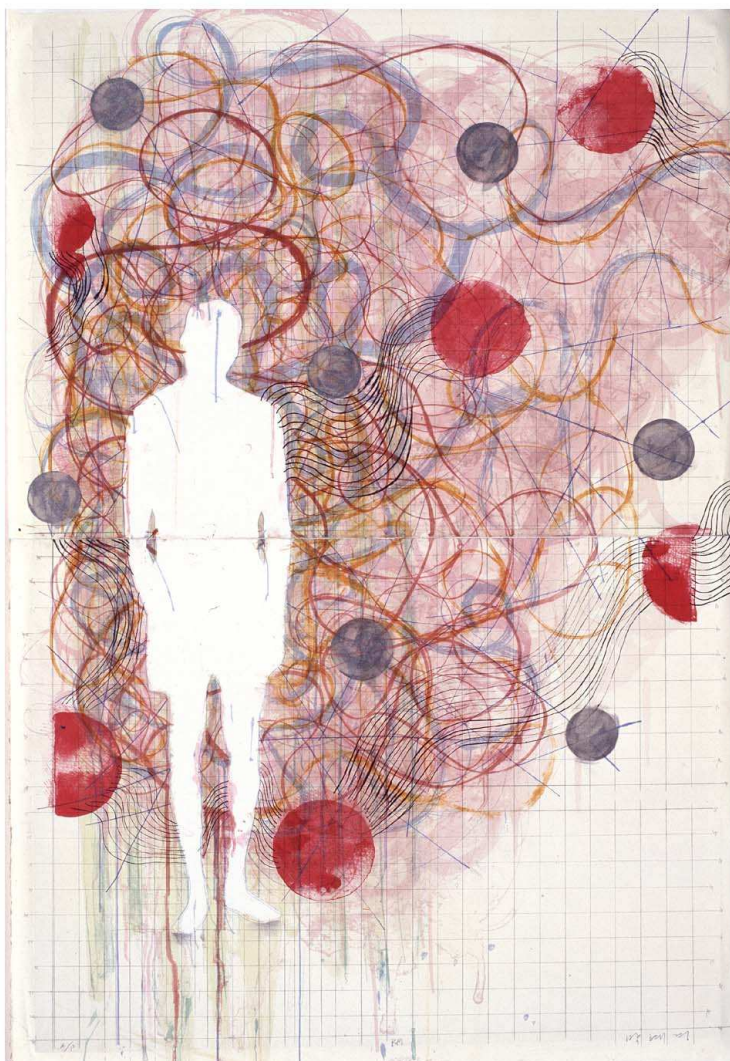
공간속의 표현된 인물들은 [작품1]에서는 자유를 꿈꾸지만 갈등과 공허함으로 고독함을 느끼면서 작업하고 있는 인간의 개인의 뒷모습을 전사방법을 통해 그려 내었다. 아래 부분의 아무런 군더더기 없는 빈 공간의 세 명의 인간의 모습 또한 위에서 언급한 사이버상의 간접적인 사회구조 속의 익명성을 띤 인간의 모습이다. 한명이 아닌 세 명을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빨강 점 또한 상징적 인간의 모습으로서 무수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화면 속 배경은 파란색으로만 하늘을 상징한다. 이 또한 파랑색을 한 번에 얻기 보다는, 잉크에 미디엄(Medium)을 많이 혼합하여 여러 번 색을 적어서 투명함 속에 깊이를 표현하여 무안한 자연(하늘)이 주는 깊고 넓은 마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작품2,3]의 인간의 형상은 한명이 아닌 여러 명으로 그 공간 속에 배치되어 있다.[작품2]에서는 흑인이 속옷만 입은 채 철조망처럼 얽혀 있는 공간 속에 서있다. 흑인을 모델로 한 것은 인종차별의 의미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소외당하는 현대인들을 과거에 인종차별로 인해 소외당한 그들로 빗대어 석판화의 전사방법을 통해 표현 하였고, 작품의 아랫부분에 보여 지는 파란 점들은 현대인(사회구성원)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또한 어떤 특정한 곳(지점)을 표시 하는듯한 사회의 구조 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의 작품주제인 인간의 내적 갈등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이미지화(점으로 표현) 하여 선으로 연결하여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표현한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에서 개인으로 출발하여 집단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으며 더

불어 살아야만 하는 것을 기호화하여 표현 하였다.

[작품1,2,3]은 모두 석판화 기법만으로 제작한 것이다.[작품1,3]에서는 수채화 같이 투명함을 나타내고자 의도했다. 그 방법으로 즉 잉크에 미디엄(Medium) 많이 혼합하여 유성잉크가 가진 둔탁함을 투명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하지만 너무 많이 투명한 색을 판화지에 찍다보면 판화지에 색이 입혀지기 보다는 종이 위에서 반발 작용이 일어나는 문제점을 [작품1,3]의 제작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작품4] 공허

150x103cm , lithography , 2003

[작품4] 공허

[작품4]의 제목은 “공허”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공허”란 마음의 허전함을 의미한다. 화면 안에 보이는 인물의 모습은 묵묵히 참고 생각하는 사람, 축 쳐진 어깨에 아무런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공허함 그 자체로 느껴진다.

이 작품에서 인물은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닌, 익명성을 띤 가상현실로 인해 정서적으로 병들고 고독한 현대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러한 현대인의 공허함의 표현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본인은 아무것도 그려 넣지 않은 채 인물의 형태만을 가지고 빈 공간으로 연출하여 흰색으로 익명성을 띤 인물로 그려 내었다.

화면 안에서 보여 지는 인물과 공간이 가지는 의미는 자신의 자아성에만 갇혀서 사회로부터 상처받은 현대인의 모습이다. 그리고 배경에서 보여 지는 수많은 색채로 이뤄진 드로잉 된 선들은 사이버세상으로 연결 시켜주는 하나의 회로를 뜻한다.

이 작품은 석판화기법을 이용하여 [작품1]과같이 잉크에 많은 양의 미디엄(Medium)을 섞어서 투명성을 극대화시켜서 좀 더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복잡한 사이버상의 회로나 현실 구조를 선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직접적인 석판에 해먹, 크레용, 락카 스프레이 등으로 유성으로 표현 될 수 있는 재료로 많은 선을 중첩시켜 하나의 면이 되도록 표현했다.

하지만 색의 선택에 있어 너무 투명성만을 강조하여 색의 탁함이 문제가 되었다. 본인은 이 작품을 통해 페인팅으로 길들여진 색의 선택과 혼합의 방법

을 버리고자 노력하고 관화의 성격으로 색의 중첩의 표현으로 색의 분석에 많은 고민을 주었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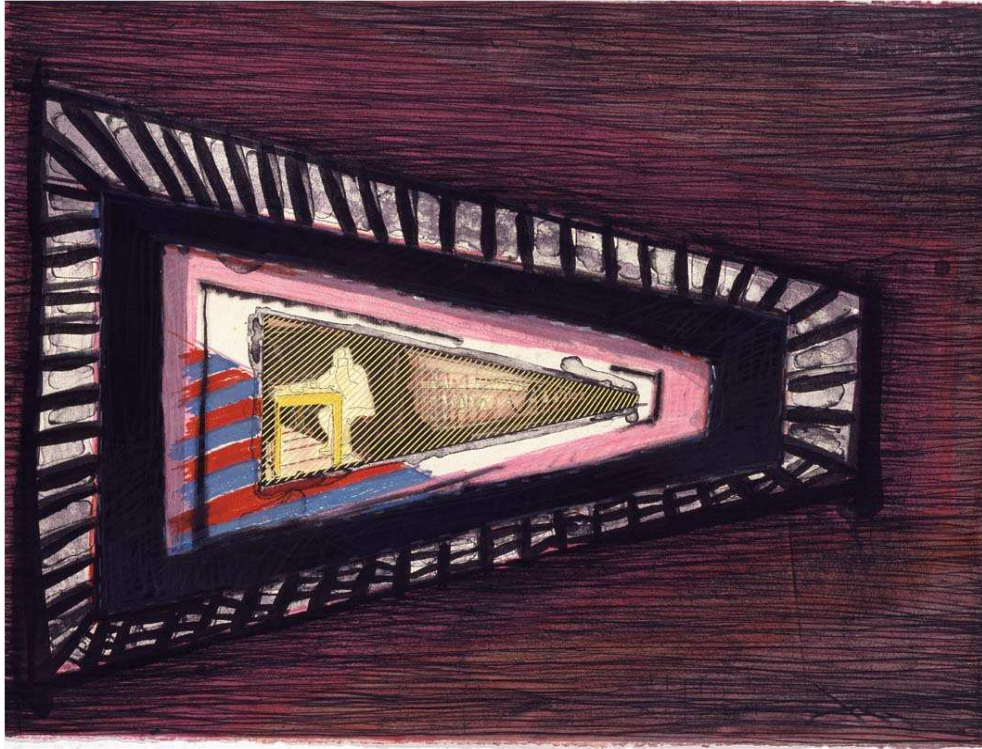


[작품5] 자연과의 소통
76x54 cm , lithography , 2004

[작품5] 자연과의 소통

도시화된 삶 속에서 현대인들은 매일 똑같은 반복의 일상을 경험한다. 이러한 반복된 일상은 현대인을 지치게 만든다. 하지만 반복된 지루한 일상 속에서 겪는 인간의 공허함, 답답함을 쉽게 해소 할 수도 없다. 인간은 사회로부터의 공허함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존재에 대한 문제점은 예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지만 현대에 와서 도시화된 공간에는 자연과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도심공원이나 분수, 대자연속에 부분들은 작은 공원처럼 만들려는 노력이 가해지고 있다. 이렇듯 인간은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본인은 이러한 작품에 관한 내용의 주제로 기법으로는 석판화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화면 안에 두 명이 인물이 등장 하는데 한명은 어두운 면으로 처리하고, 또 다른 하나는 흰색의 빈 공간으로 표현 하였다. 그 이유는 어두운 면은 사회의 부조리와 바쁜 일상에 지쳐있는 현대인의 모습이라면 흰색의 빈 공간의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정화된 모습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석판화에 만 사용되는 해먹을 이용해 작품의 분위기가 딱딱해지지 않고 자연스러운 붓의 느낌과 해먹이 같은 주름적인 표현들을 극대화시켜서 자율성을 지닌 드로잉적인 표현을 하고자 하였다.



[작품6] Thinking

76x54 cm, lithography, 2004

[작품6] Thinking

소외라는 말을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인간이 인간에게 고유한, 또는 본질적인 존재로부터 벗어나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여 오직 인간만이 갖는 독특한 양식이다.

이것은 인간 본래의 존재양식으로부터 이탈하여 소원해진 다른 모습으로 변해 가는 것을 말한다. 현대사회와 인간존재의 다양한 소외현상이 있다. 운명과 죽음으로써의 소외, 자아로부터의 소외,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소외, 사회 집단으로부터의 소외였다.

[작품6] 에서 보여 지는 인간의 소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소외이다.

이중 삼중으로 갇혀있는 공간속에 책상 안에 앉아 턱은 괴고 있는 인물을 그려낸다. 무언가 생각을 하는 사람 속에 사선의 선과 면으로 사람을 가둬 놓은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

이렇듯 공간역시 익명성을 띄기는 마찬가지다. 특정한 어디라고 혹은 보통 명사화 할 수 없는 공간의 모습은 작위적이지만 냉소적 이고 어쩐지 비애감을 일으킨다. 깊은 사선으로 투사된 공간은 그 깊이를 만들어 내기 보다는 막혀있는 벽을 연장시키는 답답함을 던져준다. 그러한 공간 감정이 인물을 마치 틀처럼 싸고 있는 것은 어찌면 상투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지루하고 답답한 형식의 벽의 공간이 지금의 현대인이 겪고 있는 현실세계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본인만이 가지는 해석 방법이다.



[작품7] Adaptation

103x75 cm , lithography , 2004

[작품7] Adaptation

인터넷의 보급으로 현대인들의 삶은 편리함과 신속함속에서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그 속에서 현대인들은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삶속의 바쁜 일상(과중 업무)으로 인하여 이웃과 친구, 가족 간의 만남이 줄어들게 되었고 점점 개인화 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스트레스 또한 극대화되고 있어서 현대인들은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사회구성원들과의 어울림 없이 소외되고 있다.

본인은 소외라는 측면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은 타인에 의해 소외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타인과의 만남을 배제하는 것 즉 아웃사이더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바쁜 일상으로 인한 시간적여유가 없는 현대인들은 타인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엔 너무 피곤함에 지쳐있다. 나란 존재에게 휴식을 주지 못하면 대인과의 교류도 귀찮아져서 점점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인터넷이란 이런 현대인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가상공간에서 본인의 선택으로 친구도 만나고, 취미, 쇼핑, 정보 공유로 인해 컴퓨터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된다. 하지만 본인은 편리한 속에서 혼자만의 세계에 소외되고 있는 모습을 도시화속에서 자연이란 소재를 통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으로 개인화 되고 있는 현대인들이 가상공간에서 빠져 나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작품이다.

[작품7]에서는 잎사귀의 모양을 자연의 소재로 상징화하여 빈공간의 인체의 형상 안에 채워 넣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자연과 하나임을 뜻하는 것이다. 배경의 검은 색은 도시화의 발달로 인해 오염된 사회를 어두운 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람의 형체는 옆모습으로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그 것은 현대인들은 자연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이다. 배경의 검은색이 물줄기처럼 아랫부분의 식물의 이미지에 뿌려지는 것은 자연을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하지만 자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끝임 없이 자연의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7]은 103x75로 석판화기법을 이용하여 제작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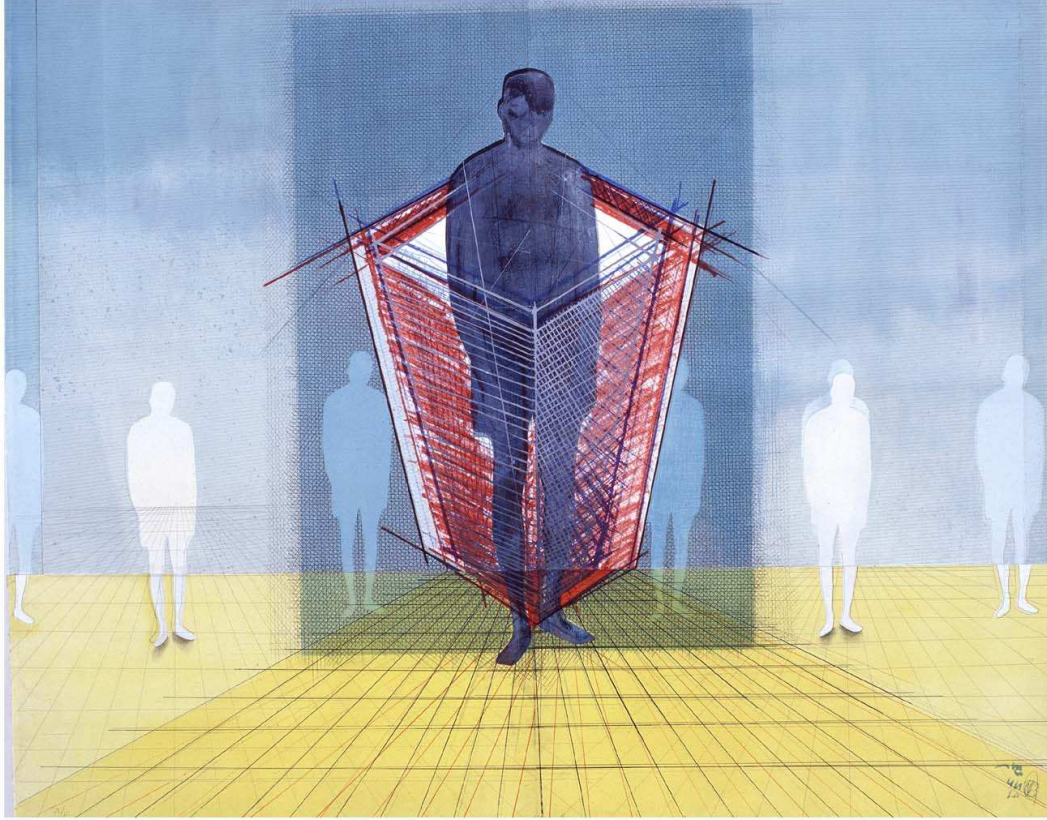
[작품8] Gloomy Pm
100x140 cm , lithography , 2004

[작품8] Gloomy PM

현실사회의 부정과 현대인이 갖는 답답함과 자유의 갈망에 대해 표현한 [작품8]은 물의 번짐과 드로잉이 강하게 느껴지는 작품이다.

표현방식에 있어서는 석판화의 해먹효과를 많이 이용하고자 한 작품이다. 그 이유는 평판인 석판화의 가벼운 느낌과 이미지의 단조로움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해먹의 농담과 수채화로 적절히 혼합되어 밀도감을 주고자 한 것이다. [작품8]에서는 판에 의해 하나하나의 색이 중첩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색이 풍부함으로 서로 섞이면서 화면 안에 보여 지는 것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배경에 보여 지는 인물의 표현방식은 그 전 작품에서는 빈 공간의 여백이라면 [작품8]에서는 검정에 가까운 어두운 면으로 인물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현대인들의 어둡고 우울한 모습을 색으로 상징화하여 표현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경역시 어두운 톤으로 인물과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한 화면에 공존 하듯 표현 하였다. 따라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한 인물과 배경은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내적인 현대인의 불안과 외로움을 인간이 실제로 공생하는 모든 곳-사회, 친분관계, 사고, 개인의 경험이나 추억 등을 이야기 표현하였고, 그 안에는 역시 자연이란 소재인 잔디, 구름 등의 이미지를 넣어서 자연으로서의 회귀를 보여주고 있다.

[작품8]은 140x100으로 석판화와 수채화를 배경에 혼합하여 밀도감을 살리 고자 한 작품이다.



[작품9] 익명적 인간
162x130 cm, lithography, 2004

[작품9] 익명적 인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PC와 인터넷의 보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활성화 되어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동향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으며, 빠르게 알려진 정보들은 다시 역동적으로 현실에 반영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현실적인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부터 가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다. 인터넷의 보급은 과거 인류의 생활 패턴을 바꾸어 놓은 산업혁명에 이은 정보화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사회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현대인들의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정보의 공유는 현대인들의 불만과 욕구의 목소리를 사회에 표현 할 수 있게 해주며, 바쁜 현대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인터넷의 남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익명성이 위협되어 삶을 망치기도 한다.

본인의 이러한 사회현상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드러내고 싶은 의도에서 [작품9]를 표현 하였다.

화면 안에 먹지를 통해 그려낸 깊은 사선들은 사이버 가상공간을 의미하며, 중첩된 선의 사각 면은 인터넷의 연결선으로 상징화하였고, 사람의 이미지를 사각박스의 선 안에 가둬 놓은 형상은 맹목적으로 유출되어있는 인터넷의 피해와 익명성이라는 것으로 개인이 위협받는 상황을 간혀있는 모습으로 표현 하였다.

[작품9]는 석판화기법으로 총 4개의 판을 이용하여 100호로 제작하였다.



[작품10] 소통

33x30cm , lithography , 2004

[작품10] 소통

소외와 고독함으로 인해, 비인간화 되어진 현대인들이 그 고통으로 부터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 중에서 본인은 사람과 자연의 소통관계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였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이 모든 것은 소통-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관계가 유지 되 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인은 [작품10]을 통하여 사람의 형태를 빈 공간으로 여백을 둔 이미지와는 다르게 자연적인 느낌을 살리고자 인체의 이미지 안에 물로 섞인 해먹을 통해 자연건조를 시키면서 자연스런 인체의 형상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작품 속 배경의 자연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화분을 통해 사람과 자연의 소통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으며, 소통의 연결고리로는 먹지로 선을 드로잉 하여 무수히 많은 선의 중첩으로 표현하였다. 배경 속안에 있는 화분을 감싸고 있는 일률적인 선은 철조망 같은 느낌으로 현대사회와 현대인의 관계속의 현실을 복잡한 선의 중첩을 통해 답답한 벽처럼 상징화 한 것이다. 본인은[작품10]에서 세 가지 색상(민트, 핑크, 검정)으로 그 속에서 물감들이 섞기면서 좀 더 풍부한 색상을 유도하려했던 판화의 기본적인 판의 중첩을 완성하고자 한 본인의 의지가 담겨 있다.

V. 결 론

과학적 발달과 함께 정보화와 네트워크 시대로 발전한 환경 속에서 현대인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갈등의 원인들 가운데 본인은 소외로 인해 비인간화 되는 모습을 익명적 인물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소외란 문제를 사람과 자연의 하나 됨으로 그려내어 현대인들이 진정 추구해야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문하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작업하였다.

본인은 작품속의 현대인들의 모습을 빈 공간으로 인간의 형태를 실루엣으로만 표현하여 인터넷의 가상현실 속의 익명성을 띤 아바타(Avatar)를 상징하였다. 익명성이라는 전제아래 너무 많은 사이버 피해와 현대인들이 가지는 심리적 갈등을 소외, 고독, 비인간화로 보고 정신적으로 굶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배경이나 인체의 형상 안에 어두운 색이나 흰색의 색으로 상징성적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작품에서 보여 지는 공간은 인터넷의 가상현실과 현 사회 환경의 표현이다. 무수히 중첩된 선들의 반복으로 면을 만들기도 하고 복잡한 형태의 벽을 만들어서 이미지들의 느낌을 불안정한 건축의 뼈대처럼, 또는 답답한 벽을 연상시켜서 불안정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선이나 면으로 공간을 표현한 것이다.

본인은 이 논문을 통해 사회 환경 속에서 내 모습과 내 주변인들,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의 모습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인이 작품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의 배경이 되는 사회와 인간에 대한 이면에 깔린 모습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생각과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진지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작품 표현연구에 대한 논리를 정립하게 해주었다. 예술에 있어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내면세계의 표현을 통해 자신의 존재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질문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현실의 삶을 안주하기 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한다. 본인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작품을 통해 진지한 내면세계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나아가고자 하였다. 작품 제작에 따른 표현기법과 분석을 통한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좀 더 자유로운 표현과 판의 대함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재료 이외에 다양한 실험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 본인에게 부여된 과제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본인은 작품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소외라는 부분을 좀 더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논리와 사고를 수반하여 타당성 있는 형태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이란 관계를 두고 자신만의 주제와 형상언어를 펼쳐나가고자 한다.

참고 문헌

-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마샬 맥루한 지음, 박정규 옮김,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7
- 현대문화와 소외, 파펜하인 지음, 진덕규 역, 학문과 사상사, 1977
- 고독한 군중, 데이비스 리즈먼 지음, 정암 펴냄, 1961
- 현대인에게 보내는 편지,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 지음, 대한기독교서회 펴냄, 1971
- 예술과 영혼, 김화영 역, 르네위그저자, 열화당, 1979
- 색채론, 요한 볼프강 괴테, 민음사, 2003
-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 홍성사, 1981

ABSTRACT

A Study on the Anonymously Human Being and the Spatial Representation in Modern Persons

-Centering on a Work of the Person Oneself-

Park hae-kyung
Department of Printmaking Major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s what researched and analyzed its formative context in terms of the background and of an expressive method in contents that are mainly being represented in a work, targeting oneself's work that had been manufactured through the process of graduate school from 2002 to 2004.

A work of the person oneself tried to examine a concept of contents about it, while seeing the looks of modern people, who are busily living amid the urbanized society, as solitude and dehumanization.

Modern people are being transformed and interrupted into the contradictory cluster, aiming to survive amid society. The person oneself researched focusing on mental conflicts (alienation, loneliness, and dehumanization) that come to be suffered while modern people proceed with living, first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social existence in

the expressive contents of a work, by representing these looks as the anonymously human being and the space.

As the formative analysis on this, the person oneself divided the structure of society that represented modern people's mental conflicts, which are experienced externally and internally amid society, into the anonymously human being and the space. And, it was explained about the drawing-wise form and a meaning of the represented line which are possessed in a work by the amassed lines that were used for expressing as the anonymous space, and was processed the shape of an anonymously human being as the empty space that does not require the specific image. The looks allow it to be felt just like the vanity and loneliness of modern people. Like this, it was described a meaning about the looks of anonymously human being that were represented on a work of the person oneself.

And, it was tried to clarify each intention of representation being possessed by colors that were used aiming to express this spatial presentation and the modern's looks.

Also, it was strived to clear up a feeling that materials have and the expressive intention that is being shown in a work, by analyzing a meaning that came to select the lithograph technique and the formative languages that were formed in oneself's work, in terms of the explanation about the expressive technique of a work.

Finally, it was aimed to put forward the specific plate about oneself's work and to help with understanding by, in detail, explaining the

expressive contents and the formative attempt and application.

